

法을 보이고 있다.

現 高

- 甘山寺址石塔 約三・三m
- 崇福寺址東塔 " 四・三m
- 全 西塔 " 三・二m

望星里 新羅陶窯址發掘 豫報

—新羅五岳調查記 其四—

金 元 龍

지난 三月末에 慶州의 崔南柱氏에 依해 發見된 慶州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의 新羅陶窯址의 發掘은 新羅五岳調查團事業의 하나로서 四月二十日부터 三十일까지 滿六日에 걸쳐 實施되었으며 그 報告書는 後日에 出刊될 것이나 于先 豫報로서 그 概畧을 적어두는 바이다. 그리고 이번 發掘에는 서울大考古人類學科敎室의 任孝幸, 金秉模 兩君과 따로 慶州 側에서 慶州博物館長 朴日薰氏 또 崔南柱氏가 合力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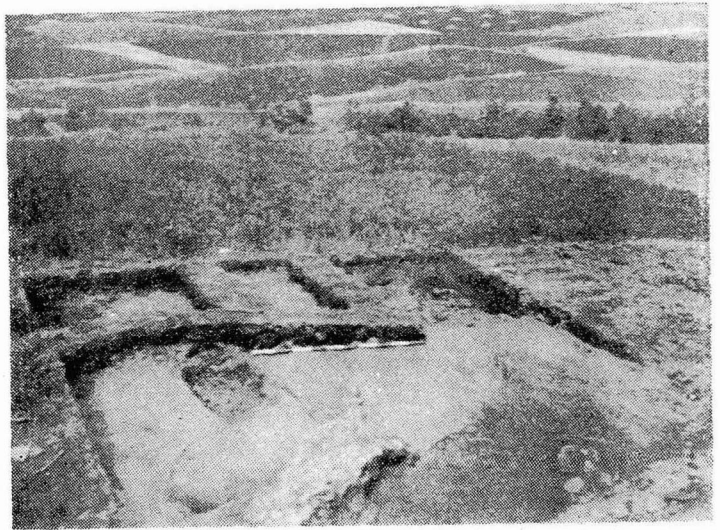
望星里는 慶州市西南쪽에 있는 望星山의 東麓에 있으며 慶州市로부터의 直線距離는 約六km쯤 된다. 望星山의 東쪽은 平地로 되어있으며 慶州에서 南流하는 넓은 溪川을 사이에 두고 멀리 南山과 對하고 있다. 이 望星里의 山麓에는 여러군데 —우리가 確認한 것만도 四個處—에 新羅土器窯址가 있으며 三國時代에는 慶州가 가까운 土器生産地로서 有名하였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번에 發掘된 地域은 山기슭 松林에 接하고 있는 밀밭이었으며 이 밭은 南山 即 東쪽으로 緩傾斜하고 있으면서 그 南과 東端은 모두 周圍地帶보다 一・五m程度 一段 높아지고 있고 兩端 即 山과의 境界線에는 近來의 墳墓 二基가 있고 山에는 十年生程度의 松樹가 群生하고 있다. 밭 主人의 말에 依하면 年前까지도 이 밭과 山과의 境界線 가까이에 무덤갈

은 封土가 있었다고 하며 그 位置는 바로 이번 發掘하여 窯의 遺構가 나타난 位置로서 아마 窯壁의 一部가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發掘은 土器破片이 많이 散布되어 있는 北으로 幅二m 長十四m의 트렌치 A를 設定하고 于先 I, III, V, VII, 區를 發掘한 結果 I, III는 深四—五〇cm 程度의 黑色堆積層 뿐인데 對해 V, VII에서는 그 堆積層이 깊어지고 또 分明한 燒土層이 나오기 때문에 A 트렌치를 西쪽으로 더 넓혀 BV, VII, CV, VII의 六區를 왔으며 이 部分에서는 六m平方의 面積을 發掘하였다. 그 結果 B, C 地區에서 窯의 遺構가 露出되었으나 近來 墳墓때문에 그 以上 더 面積을 擴張해 볼 수 없었다.

窯는 火口를 東쪽에 두고 東西方向으로 뻗고 있으며 바닥은 地面을 十度假量 傾斜하면서 扁平하게 다진 것이지만 壁은 石列을 三重으로 쌓고 그 外部에 다시 진흙을 씌웠고 石壁의 두께는 三〇—四〇m程度, 진흙 壁은 二〇—三〇cm 程度이다. 그런데 이 元來의 窯壁內部에 다시 진흙을 바르고 그 안쪽에 石列을 쌓아 二次的인 補修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닥이 7cm 정도의 灰層을 사이에 두고 上下二層의 燒土層으로 되어 있는點과 아울러 이 窯가 建設된 뒤 一回의 改修를 거친것임을 말하고 있다.

窯壁은 火口近處에서 좁아지고 中央部에서 若干 넓어지고 있는데 現在 露出된 部分에서는 兩壁間의 幅이 一·七m를 보이고 있다. 또 窯壁의 高는 아직 正確한 復原圖를 마련하지 못해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壁의 曲線으로 미루어 보아 最小 一m는 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窯의 길이는 發掘面積擴張이 不可能해 究明할 수 없으나 墳墓後部에서의 試掘結果 最小 一〇m는 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면 이 窯는 山麓의 緩傾斜面에 營造된 壇坫式 登窯였으며 이것은 日本의 古墳時代 須惠器窯나 現代의 韓國在來式窯와 共通되는 形式이다.

여기서 採集된 土器는 아직 未整理이지만 統一時代의 印文土器片은 하나도 없었고 大部分이 靑瓦色刻線文 또는 無文土器였고 器形으로는 三國時代後期라고 생각되는 다리가 짧은 高杯가 壓倒的이었다. 그러나 軟質赤色土器도 적지 않게 나왔으며 이러한 土器片들이 AⅧ에서는 九個의 層을 이루고 堆積되어 있어 앞으로 이 破片들의 整理를 통해 여기 一個 窯의 土器나마 形式變化의 實相을 把握하게 될는지 모르겠다.

長興出土 金銅藥師如來立像

崔 淳 雨

一九六四年 四月 十六日 全羅南道長興郡 冠山面 玉堂里 山二三五番地에 있는 傳 玉龍寺 자리에서 開懇作業中 白桂寅氏가 發見한 金銅藥師如來立像 一軀가 同月 二十二日 魯錫徑氏의 추천으로 全羅南道博物館에 入手되어서 그 후 國家歸屬措置에 따라 國立博物館에 移管되었다.

이 如來像은 瘠軀長身の 날씬한 體軀에 淡淡하고 해맑은 鍍金빛이 全

身의 凹部에 적지아 니 남아있고 保存이 잘되어서 첫눈에 非凡한 遺物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자름한 螺髮에 도툰한 肉髻가 있고 목에는 三道, 通肩으로 된 法衣자락은 그



현질한 體軀를 감싸며 양다리에 비늘져서 들이워져 있다. 바른손은 들어서 現掌하고 왼손은 가볍게 드리워서 藥壺를 들었고 面長한 相好에는 두눈이 유난스럽게 두드러져 보인다. 背面에는 어깨로부터 발목 부분까지 全身이 舟形으로 후벼 패여져서 片佛類에 가깝고 머리 뒤에도 등골게 홈이 패여져 있어서 光背의 接着을 도움기 爲한 자취로 생각된다. 등뒤의 이 舟形 홈통안에는 바로 목 밑과 종아리 뒤 부분에 조그마한 突起가 하나씩 있어서 이것이 身光을 꼬여달던 자취임을 알 수 있었다. 또 覆蓮臺座는 常例가 아닌 七角으로 되어있어서 따라서 蓮瓣도 七瓣으로 되어 있다.

百濟 金銅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러운 單瓣覆蓮座이지만 이 蓮瓣에는 點孔線으로 무늬를 장식했던 흔적이 보이고 또 下臺와 覆蓮座사이의 中臺의 各面에는 眼象文으로 생각되는 點孔線의 흔적이 남아 있다. 佛體는 양발 밑에 달린 한개의 축으로 蓮華座구멍에 꽂아 接着시켰으며 像容의 表現와 技巧가 모두 輕快하고 샤프한 맛을 주는 것이 特色이다.

七世紀 中葉으로 부터 七世紀 後半期에 걸치는 百濟系의 作品으로 생각되나 出土地의 傳 玉龍寺址에 대한 知見은 現在 그 寺址에 光背와 臺座가 具全한 如來石像 一軀가 남아있다는 말을 傳해들었을 뿐이며 東國與地勝覽長興郡 佛宇條에 보면 「玉龍寺在天冠山」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佛身高 九·二cm 全高 二·八cm 臺座 最大徑 四cm 臺座 一邊 一·